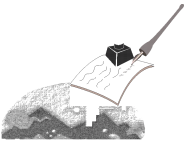


능동칼럼



인간의 오복五福은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이다. 수는 오래 사는 것, 부는 부유한 것, 강녕은 건강한 것, 유호덕은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마지막이 고종으로 명을 마치는 것이다. 고종은 오래 살며 두루 살피 잘 이룬다는 뜻이 있으니 거기에 종終이 더하여 잘 이루어 마친다는 뜻이겠다. 요즘 만든 한국어 웰다잉well dying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이다. 흔히 어떤 이가 잘 죽은 것을 일러 ‘죽음복을 탔다’고 덕담하는데 이 고종명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부、강녕、유호덕을 해도 오복을 갖추었다고는 못하게 된다.

기십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가망이 없는 환자는 의사가 판단하여 퇴원시켰다. 집에 가서 죽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야 고종명이 되기 때문이며 자기의 침실을 정침正寢이라 하여 그곳에서 숨을 거두어야 정침고종正寢考終이 되고 문밖에만 나갔다가 죽어도 객사客死로 보아 시신으로는 정침에 들어오지 못하여 바깥에 빈소殯所를 차렸다. 지금은 전직 국가원수도 병원에서 고종을 하니 사실 격세지감이 크지만 고종명의 개념도 이제 달라져야 할 것 같다. 병원의 만반의 의료혜택을 받으며 운명하는 것이 고종이지 그만한 형편이 못되어, 또는

考終命과 존엄사

權海兆
편집위원

병원에 갈 사이도 없이 발병한 급환으로 자기집 정침에서 죽어 시신으로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으로 실려 나가는 것은 오히려 횡사橫死로 인식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일과 관련하여 요즘에는 식물인간이니 뇌사상태니 또는 안락사、존엄사에 품위있게 죽을 권리라는 말 등이 생겨나 두루 쓰이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고종명의 관념에서 발원하여 파생한 용어가 아닌가 싶다.

지난 5월에 우리나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식물인간상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실현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재판부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이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사회상규常規나 헌법정신에 부합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생명권 존중의 헌법이념을 기본적 토대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삶의 최종단계에서도 환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질서내의 현행법 해석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 판결문에서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한 헌법 제10조의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과 그 전제인 개인의 ‘자기운명 결정권’이 도출된

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으로 ‘환자의 사전 의료지시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신념에 비취 추정해야 한다’고 금선禁線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판결은 11년 전 1998년 5월에 의식불명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안락사케 한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그 가족과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옛사람은 사람이 죽는 것을 혼천백지魂天魄地로도 표현했다. 혼령魂靈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체백體魄, 즉 몸뚱이와 넋은 지하로 찾아든다는 것이다. 사람의 혼령은 주로 머리에 있고 넋은 가슴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혼령과 체백으로 나눈 것이다. 옛사람에게는 혼령이 중하고 체백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혼령을 모신 사당을 체백을 모신 묘소보다 더 받들었다. 체백은 혼령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혼령이 없으면 체백은 무위였던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옛적에 지붕같은 높은 데 올라가 그 몸에서 나간 혼령이 돌아오도록 부르는 고복梟復, 즉 초혼招魂을 했다. 그래도 혼령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발상거애發喪擧哀를 하고 혼령이 나가고 없어진 체백을 장사지내는 절차를 시작했다.

혼은, 즉 영혼은 정신이고 넋은 마음이다. 그런데 정신이 없으면 마음도 기능을 못하니 머리가 죽으면 가슴은 절로 소용이 없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뇌사腦死를 하면 정신이 죽어 없어진 것이니 체백만 남아 있는 것이 된다. 정신이 나가서 없어진 육체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 따라서 사라지게 두는 것이 순리라면

이를 의술이라는 인위적 행위가 억지로 못가게 막는 것이 혹시 역리는 아닐까. 뇌사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무한정 못죽게 하는 것이 인도적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고종명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을 한사코 못죽게 강제하여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욕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또한 비인도적인 것이 아닐까. 고종명은 대개 자연사自然死가 될 것이다. 의학이 뇌사자를 연명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연사를 돕는 것일까 아니면 방해하는 것일까.

고종명은 또한 존엄사尊嚴死이기도 할 것이다. 사람의 태어남이, 영장의 생명이 창조되는 것인만큼 신성하다면 죽음은 이를 마치는 것이니 존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존엄사의 개념에 대해서도 유념할 까닭이 있다. 존엄사는 품위있는 죽음이다. 장치에 의한 생명 연장이라기보다 인간적인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가했거나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 가망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뜻한다.

안락사安樂死도 존엄사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질병이나 노쇠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 삶이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참혹하거나 치욕스러워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일 경우, 그 생명을 마감시키는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인 죽음이 될 것이고 인위적 죽음은 곧 살인이 되는 확대해석

도 뒤따른다. 뇌사는 뇌의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을만큼 의학적으로 생명을 주관하는 뇌간腦幹(숨골)의 기능이 정지되어 반사작용이 없거나 무호흡 증상이 확인된 상태이며, 식물인간은 심장과 폐기능이 작동을 멈추는, 대뇌의 전반적인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호흡중추가 뇌간에 있어 인공호흡기가 필요없는 상태이다. 호스피스hospice란 원래 고단한 순례자나 학생·불우자를 위한 숙박소의 뜻인데 말기환자를 위한 의료·간호 행위 또는 그 시설을 지칭하게 되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의사·간호사·자원봉사자가 심리적·영적 상담을 하여 품위있고 자연스런 죽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제도이다.

인간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만도 아니다.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존엄사를 부정하고, 생명의 의의를 그 본인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보는 사람들은 존엄사의 인정을 주장할 것이다. 매년 병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25만이 사망하고 있다. 물론 집에서는 별로 죽지 않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최근 주요병원에는 연명치료 거부 서약을 통해 자연스런 죽음을 맞고자하는 말기환자들이 늘고 있다. 존엄한 인생의 끝을 마무리짓는 것은 인생전체의 결산이다. 죽음을 맞는 사람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통증에서 해방돼 가족친지들과 거룩하게 이별할 수 있는 품위있는 죽음의 환경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오복의 마지막 하나인 고종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4면에서 계속

하는바가없어혹은값을깎고에 누리하기에이르렀다. 공이탁지度支(호조)의 판서가 되어서는 모든 것을 구례舊例에 따르고 변칙을 없이하겠다면서마땅히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않겠다 하니 저자의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 경연에 입시해서는주역周易의 정괘井卦를 강하게 되니 아뢰기를 ‘삼효三爻는 이른바 왕이 밝아서 복을받는것인데곧밝은왕이인재를 거두는 뜻입니다. 지금 세상에 비록 사람이 없다고하나 정녕 그 사람을 구하기로 하면 어찌 얻지 못할 것을 근심하겠습니까’하고 인하여이현일李玄逸을 천거하면서 경학經學에 밝고 행의를 닦았으니 마땅히 예를 갖추어 초청하여 맞이해야 한다 하니 임금이를쫓았다. 癸卯병자丙子(11월)에 질환이 있어 사흘 지나 무인戊寅(12월)에정침正寢에서고종考終하니 향년 70세였다. 부음이 문달되자 임금이 진도震悼하여 말긴 바

가 바야흐로 융성한데 뜻밖에 장사喪逝하니내가 심히 금참矜慘하다’하고 장례와 제사의 수품需品을 무수히 지급하라 하고 관원을 보내 의례에 따라 조제吊祭를 하게 하였다. 6월 을유乙酉(2일)에 남양南陽의 달명산達明山 계좌窆坐 언덕에 장사하였다. 공은 효도와 우애가 출천出天이고 선군자先君子(부친)가일찍벌세한것을통한하며 대부인대夫人(모친)을 받들되 승순承順하여어긋남이 없으면서 충실히 봉양하기를 더할 수 없이 하며 그 마음과 뜻을 즐겁게 하다가 그 상을 당해서는해가 처음 쇠질衰을 비롯함에서부터아 통하고 그리워하여 부르기를 3년을 하루같이 하되 비록 무더운 성하盛夏에도 최질을 벗는 일이 없었다. 여러 누이와 더불어 은의恩義가 곡진하였는데 그 재산을 나눔에는그 비옥한 것은 미루어나 누어주고 스스로는 척박한 땅을 차지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관인官人이니 마땅히 춥고 굶주리기에 이르지않을 것이다’하였다. 공

이 비록 여러 주부州府를 누차 전장典掌하고 한 차례 지방을 관찰하였으나 얼음과 황벽나무를 씹듯이 하며 스스로를 책려하였기 때문에 집에는 묵은 재화가 없었다. 사명使命을 받들고 출국하는 날 서수西帥(평안도병마사)가 수십금을 선사하였는데 공이 이를 받아가지고 갔다가 귀국할 때 이를 돌려주었고 연경燕京에서 얻은 금품과 비단은 모두 흠여 편비 裊(수행하는 비장과 군졸)와 우졸郵卒(역참의 병졸)에게 나누어주니 낭탁에는연경의 한 가지 물건도 없었다. 이때에 좌상공左相公(권대운)이 수급首揆(영의정)에 있으니 일가에 공직자가 여덟 자리이고 자여질 3인이 삼사司에 포열布列하고 있는지라 공과 영의정공이 성만盛滿(그름에 가득차서 흘러넘침)을 근심하여 정평正平을 지론으로 삼고 봄으로 봉사함은 청근請勤으로 하며 권세로부터는갈무리 물러나기를 제몸이 더럽혀질 것을 피하는 것같이 하며 이로써 스스로를 갈고 닦게 하여 이로써

자여질을훈계하였다. 국가의대계大計와 조정의 득실에 대해서는 곧바로 일신이 지고 떠메고자 하면서 유지하고 바로잡으며조화를 즐겁게 지내는 것을 버리고 세도世道를 부축해 세위 힘을 다해 한가지로 더불어 구제할 것을 기약하였으나 남들이 나와 같지가 않고 세월이 머물지 아니하여 줄하면서 한가지로 열패劣敗하게 되었다. 그러나지난날 공을 논하고 있는 것이 자질구레한 시사時事를 이해하여 처리하고 잔재주를 익히고 엮어 감히 터럭만큼도 더럽힘이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있다. 공이줄하기 전달에 학사學士 이봉징李鳳徵이와서 공을 배알하니 공이 몰래 말하기를‘ 요즘 성상의 의종을 관찰해보면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있을 것같으니 우리 두 집안이 마땅히 힘써 죽기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오늘 내 말을잊지말라’하니이봉징이에 예 하고 물려갔다. 병환이 위중하게 되어서는 임금이 중궁中宮(인현왕후 민씨)을 폐하고자 하여 해

당 조曹로 하여금 전례前例를 고증하라 하니 공이 힘써 병석에서 부축해 일어나서는 ‘우리 임금이 과연 이러한 실덕失德을 하시는가’하고 사람을 시켜 영의정공에게 고하기를‘아우는 죽습니다. 원컨대 형님께서 힘써 다투어 천의天意(임금의 마음)를 되돌려 성덕聖德에누가 가는 일이 없게 하시오’하고그날을넘기지못하여줄하였다. 오후라, 공의논의로 하여금 생전에 시행되지 못하게 하고 공의 언설言說로하여금 사후에도 신임을 받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누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옛적에 주부자朱夫子(송의 주자朱子 주희朱熹)가 원우元祐(송 철종哲宗, 1086~1094)와 원풍元豐(송 신종神宗, 1078~1085) 시대의 일을 논하면서 말하기를‘원우 시 사람은 자기와 다른 것을 아는 자를 소인小人이라 하고 자기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를 반드시

12면으로 계속